

# 1990년대 말 이후 북한 도시 사적 부문의 시장화와 도시가구의 경제적 계층분화\* 개별가구의 비공식적 연결망자원의 계층화 매개효과 분석을 중심으로

최봉대(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연구교수)

## 1. 머리말

일반적으로 국가공급체계에 의해 주민소비생활이 보장되어온 사회주의사회에서 비공식적인 시장적 관계의 발전은 기존의 정치적 신분 불평등체계(이하 ‘정치적 신분체계’로 약칭함)와는 다르게 주민들의 경제적 계층분화를 초래하고, 시장에 연계된 새로운 불평등체계를 형성하는 경향이 있다. 중국의 시장경제개혁에 따른 사회적 불평등체계의 질적 변화를 강조하는 ‘시장이행가설’에서 강조하는 것처럼 사회경제적 불평등체계는 개인적으로 축적한 ‘경제적 부’에 기반하여 사회 내

---

\* 이 논문은 2005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해 연구되었으며(KRF-2005-079-BS0078), 본 연구과제의 중간결과물 “계층구조와 주민의식 변화,” 『1990년대 이후 북한사회 변화』(서울: 한국방송공사, 2005)를 수정·보완한 것임. 이 논문의 부족한 부분을 지적해주신 익명의 심사자들에게 감사드린다.

에 새로운 지배관계의 형성을 촉진시킬 수도 있다.<sup>1)</sup>

이 글에서는 1990년대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국가공급체계에 의존하는 대신에 사적 부문의 비공식적인 시장적 관계에 참가함으로써 개인이나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거나, 경우에 따라 어느 정도 여유 있는 소비생활을 누릴 수 있게 된 북한 도시주민의 경제적 계층분화가 북한 체제이행에서 어떤 의미를 지닐 수 있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북한의 사적 부문에서 나타나는 시장화에 관해서는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지만 도시주민의 경제적 계층분화와 연계하여 사적 부문 시장화의 이행론적 의의를 구체적인 경험적 분석에 의거해서 규명하려는 연구는 아직까지 거의 없는 것 같다.<sup>2)</sup>

북한당국은 2000년대 초에 전국 시·군에 소비재 시장의 설치를 합법적으로 허용했다. 이에 따라 비공식적인 시장적 활동영역의 일부가 ‘합법적 사경제’ 영역으로 재편되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도 북한에서 합법적 사경제영역은 국가가 공식부문(국가부문)이 아닌 비공식부문(비국가부문)의 일부를 승인해준 형태로만 존재한다. 이 글에서는 북한의 합법적 사경제영역도 포함하는 비공식부문(불법적이거나 비합법적인 부문도 포함)을 사적 부문으로 간주하고서, 사적 부문의 경제활동과 연

---

1) 이행기 사회주의체제하 시장경제개혁에 따른 사회적 불평등 생성기제의 변화와 사적 시장활동에 기반한 ‘기업가’의 사회적 상승이동문제를 ‘시장이행가설’로 제시하고 있는 Victor Nee and Yang Cao, “Postsocialist Inequalities: The Causes of Continuity and Discontinuity,” in Kevin T. Leicht(ed.), *The Future of Market Transition*(Amsterdam: JAI, 2002) 참조.

2) 면접조사 등을 기초로 하여 1990년대 북한의 경제위기 국면에서 사적 부문 시장의 진척과 맞물려 진행되어온 기존 사회적 불평등체계의 재생산위기를 파악하고자 한 연구로는 김병로·김성철, 『북한사회의 불평등 구조와 정치사회적 함의』(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8); 서재진, 『북한사회의 계급갈등 연구』(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6); 정우권, “1990년대 북한 주민생활보장제도와 도시 계층 구조 재편,” 『현대북한연구』, 7권 2호(2004년) 등이 있다.

계된 도시가구들의 경제적 계층분화가 정치적 신분체계에 기반한 지배질서의 재생산과 어떤 식으로 연결되어 있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북한 도시주민의 경제적 계층 분화를 촉진하는 사적 부문의 시장화가 기존의 정치적 지배질서를 침식하는지, 아니면 사적 부문의 시장화와 기존 지배질서 사이에 어떤 다른 성격의 관계가 성립하는지에 따라 경제적 계층분화의 체제이행론적 함의가 달라질 것이다.

이 글에서는 개별가구가 보유하는 ‘비공식적인 사회적 연결망’(이하 ‘비공식적 연결망’으로 약칭) 자원이 사적 부문의 시장화를 매개로 진행되는 경제적 계층분화에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검토함으로써 이 문제를 살펴볼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탈북자 심층면접조사를 통해 수집한 자료의 분석에 기초해서 이 문제를 규명할 것이다.

## 2. 이행기 경제적 계층범주 설정과 비공식적 연결망의 정의

이 글에서는 한 가구의 생계유지의 주된 책임자(가구주)의 경제적 계층위치가 해당 가구의 계층적 위치를 대표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북한 도시주민의 계층적 분화추세를 살펴볼 것이다. 이때 제기되는 문제는 1990년대 후반 이후 북한의 경제적 계층범주를 어떻게 설정하는 것이 유의미한지이다. 식량을 비롯한 기초생활품의 국가공급체계가 붕괴되고, 대다수 주민이 생계를 위해 시장에 참가할 수밖에 없는 북한 상황을 염두에 둘 때, 도시가구의 경제적 계층들 간의 경계를 설정하는 작업은 자본주의사회에서 가구주의 수입, 보유재산, 학력처럼 상호연계된 경험적 지시자들의 총합적 경계 설정에 의해 계층적 위치를 설정하는 것과 다를 수밖에 없다.

이 작업을 위해 실시한 탈북자 면접조사 결과에 의하면 북한주민들은 시장화에 따른 계층적 분화실태를 대체로 상·중·하층이라는 범주 속에서 파악하고 있다.<sup>3)</sup> 여기서 계층범주의 상하방 경계 자체는 특정 사회의 사회경제적 여건에 따라 상대적일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가구 가치분소득이 매우 낮을 뿐 아니라 자가소비용 식량 확보가 다수 가구들의 사활적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북한 사회에서 계층 구분의 일차적 기준은 자가소비식량의 안정적 확보 정도에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sup>4)</sup> 더구나 사적 부문의 비공식적 ‘부업’을 통해 얻는 가구수입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가 곤란하고, 개인재산의 은폐가 당연시되는 풍토를 고려할 때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소비생활 실태를 계층 구분의 일차적 기준으로 삼는 것이 타당하기도 하다.<sup>5)</sup>

3) 좀 더 엄밀하게는 극빈층(‘최하바다’), 하·중·상층, 최상층(‘극상층’)이라는 다섯 개 범주로 나눈다고 할 수 있다. 극빈층은 하층의 최저생계유지 수준에도 못 미치는 집단이라고 할 수 있다. 반대로 극상층은 세련된 고급소비생활을 향유하는 집단이라고 볼 수 있다. 각각 경제적 계층의 구성비율에 관한 피면접자들의 주관적 평가와 관련해서는 최봉대, “계층구조와 주민의식 변화,” 『1990년대 이후 북한사회 변화』(서울: 한국방송공사, 2005), 174쪽 참조.

4) 일반적으로 개별가구의 수입 규모에 따라 식량, 여타 소비재 구득능력이 결정된다고 할 때, 소비지출 가운데 식량구입비의 상대적 비중은 개별가구의 계층적 위치를 판별하는 중요한 지시자로 활용될 수 있다고 보아 시장경제 이행 국면에서 다수가 생계유지에 급급한 빈곤층으로 전락하게 된 불가리아 도시 가구들의 계층적 구분에 이런 기준을 적용한 조사 연구로는 A. Atanassov et al., “Socially Vulnerable Groups During the Transition to a Market Economy,” in J. Coenen-Huther(ed.), *Bulgaria at the crossroads*(Commack, NY: Nova Science Publishers, 1996) 참조.

5) 원래 북한을 비롯한 사회주의사회에서 개인재산은 ‘개인소유의 대상’으로서 개인의 ‘소득과 저축, 개인주택, 가정용비품과 소비자료 등 개인 소비적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물질적 조건들’을 의미한다[Katherine Verdery, “The Property Regime of Socialism,” *Conservation and Society*, Vol.2, No.1(2004), p.192]. 그러나 현재 북한에서 국가로부터 사용권만 위임받은 주택의 ‘판매가격’이 형성되고 시세에 따라 비공식적으로 거래되고 있는 것이나, 개인이 국가기관에 임대료를

자가소비식량의 보유량을 기준으로 할 경우, 지역적인 편차가 있기는 하지만, 대체로 예비식량의 여유가 거의 없는 가구를 하층, 최소한 며칠 분 이상의 예비식량을 확보하고 있거나, 시장에서 구입할 수 있는 금전적 여유가 있는 가구를 중간층, 자가식량 구독문제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가구를 상층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중기’ (내구성 가전제품)의 보유 품목수와 종류도 하층과 중간층을 구분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sup>6)</sup> 또 중간층과 상층을 가르는 중요한 차이는 외화 (주로 달러)의 보유 여부이다.<sup>7)</sup> 중간층 가구 중에도 개인사업용 ‘밀천’이나 비상용 예비자금으로 몇 백 달러 내지 몇 천 달러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있지만, 사적 부문의 가구 수입활동이 기본적으로 달러로 이루어지는 경우 대체로 상층 가구에 속한다. 이와 같이 하층과 중간층을 가르는 주된 경계는 자가보유식량의 예비 정도에 있다. 반면에 중간층과 상층을 가르는 주된 경계는 가구 소비생활과 ‘개인재산’의 보유, 증식이 내화경제권에 주된 기반을 두고 있는지 또는 외화경제권

---

지급하고, 자기 돈을 투자하여 국영식당을 운영하는 것이나, 개인이 자비로 어선을 구입하여 기업소 명의로 등록된 뒤에 고기잡이를 하면서 기업소에 일정액을 납부하는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특히 중소기업도 생산수단용 재산 같은 것은 단지 개인재산이라는 용어에 의해 애매모호하게 가려졌을 뿐 사유재산권 관념이 일상생활 속에서 상당히 확산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글에서 사적 부문의 시장화나 경제적 계층분화와 관련하여 사용하는 ‘개인재산’이라는 용어도 실제로는 이런 맥락에 위치해 있는 사유재산을 뜻한다.

- 6) 특히 텔레비전이나 냉장고와 같은 가전제품이 중국산인지, 일제 중고인지의 여부 (그리고 텔레비전의 경우 ‘흑색’ 텔레비전인지 ‘색’ 텔레비전인지의 여부) 정도 하층과 중간층을 가르는 기준이 된다. ‘중기’에 속하지는 않지만 국산 자전거를 보유하고 있는지, 일제 중고 자전거를 보유하고 있는지도 한 가구의 계층적 위치를 드러내주는 가시적인 단서가 될 수 있다.
- 7) 하층과 중간층의 차이가 집안 장판을 중국산 ‘레자’비닐로 하는지의 여부와 관계되듯이, 때로는 ‘전실’(거실)에 수입산 카펫을 깔고 생활하는지 여부에 따라 중간층과 상층 가구를 구별할 수 있다.

안에서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지 여부에 있다.<sup>8)</sup> 아래에서는 이런 구분에 입각해서 선별한 경제적 계층 가구들의 사례를 검토할 것이다.

‘시장이행가설’이나 이와 대립되는 ‘지배엘리트 연속성 가설’에서 쟁점으로 제기되고 있는 것처럼, 탈사회주의 이행기 사회에서는 경험적으로 볼 때 노멘클라투라라고 통칭되는 지배엘리트에 의한 ‘정치권력의 경제적 자본으로의 전환’ 과정이 진행되는 경향이 있다.<sup>9)</sup> 이때 시장화에 연계된 경제적 계층분화는 불가피하게 ‘시장경제 외적’ 요인이나 제도에 의해 영향을 받기도 한다. 이 글에서는 이런 ‘시장경제 외적’ 요인들 중 개별가구가 동원할 수 있는 비공식적 연결망자원이 부족한 도시주민의 계층분화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를 검토할 것이다.

이 작업에서는 비공식적 연결망자원을 혈연적 연결망자원과 비혈연적 연결망자원으로 구분한다. 혈연적 연결망자원은 개인적 이익 실현을 위해 가족 구성원이나 친인척의 직업지위에 수반되는 권한과 같이 한 개인이나 가족이 사적으로 동원하거나 의존할 수 있는 권력자

---

8) 평양의 일반주민들은 ‘고난의 행군’에 들어간 뒤 얼마 지나지 않아 비록 내화로 시장에서 상품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그 가격을 ‘자연스럽게’ 달러로 환산해서 매기기 시작했다. 이는 설령 국가부문의 공식 직장을 통해 생활비를 지급받는다고 할지라도 대다수 가구들에게 그것은 무의미한 것이었고, 사적 부문의 ‘부업’ 활동이나, 공적 직위의 권한을 사용한 뇌물수수나 친구, 친인척과 같은 외부의 ‘방조’가 없이는 가족의 생계유지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을 뜻한다.

9) ‘지배엘리트 연속성 가설’이나 ‘정치적 자본주의’ 가설과 관련해서는 Jadwiga Staniszkis, “‘Political Capitalism’ in Poland,” *East European Politics and Societies*, Vol.5, No.1(1991); Akos Rona-Tas, “The First Shall Be Last? Entrepreneurship and Communist Cadres in the Transition from Socialism,”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Vol.100, No.1(1994); Yanjie Bian and John R. Logan, “Market Transition and the Persistence of Power: The Changing Stratification System in Urban China,”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Vol.61, No.5(1996); Eric Hanley, “Cadre Capitalism in Hungary and Poland: Property Accumulation among Communist-Era Elites,” *East European Politics and Societies*, Vol.14, No.1(2000) 참조.

원을 의미하는 걸로 한정한다. 비혈연적 연결망자원은 개인이 물질적·비물질적 편익의 제공이나 학연, 지연 등과 같은 귀속적 요인에 의해 구성하는 친족외적 안면관계라고 할 수 있고, 마찬가지로 개인이나 가족의 사적 이익실현을 위해 동원하거나 의존할 수 있는 권력자원이라는 의미로 사용한다.<sup>10)</sup> 따라서 개별가구의 비공식적 연결망자원은 기존 정치적 신분체계 내에서 가족의 출신성분이나 토대 등에 따라 불평등하게 배분되는 권력자원이라고 할 수 있다.<sup>11)</sup>

정치적 신분체계 내의 계층적 구분은 다음과 같이 설정될 수 있다. 먼저 가족의 출신성분이 ‘동요계층’과 같이 정치적으로 불순한 가족으로 낙인찍혀 있는 가구는 최하층에 속한다고 봐도 무리가 없다. 가족의 출신성분이 복잡하지 않은 기본군중의 대다수는 토대가 ‘나쁘지는 않지만 별로 내세울 만한 게 없는’ 가구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들은 정치적 신분체계의 하층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와 달리 가족 중에 시·군급 지방당·정기관이나 사법안전기관의 중·하급(중·초급) 간부가 있는 가구는 대체로 정치적 신분체계의 중간층에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이다.<sup>12)</sup>

이렇게 설정하고서 정치적 신분체계 내에서 가구별로 불평등하게

10) 이 글에서 비공식적 연결망자원을 접근하는 방식과 비슷하게, 동독 사회의 위계적 권위구조 내에서 실력자와 연계된 비공식적 연결망자원이 개인적 이익 실현에 효과적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Beate Völker and Henk Flap, “Getting Ahead in the GDR: Social Capital and Status Attainment under Communism,” *Acta Sociologica*, Vol.42, No.11(1999) 참조.

11) 북한의 정치적 신분체계에 관한 구체적인 논의는 최봉대, “계층구조와 주민의식 변화,” 165~166쪽 참조. 개별 가족의 출신성분과 계급적 토대에 관련된 북한의 공식 구분기준에 대해서는 박승민·배진영, “북한사회안전부 주민등록사업참고서,” 『월간조선』(2007년 7월호), 120~133쪽 참조.

12) 정치적 신분체계의 상층은 자료원への 접근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논의하기가 곤란하다.

배분된 비공식적 연결망자원이 해당가구가 경제적인 계층적 위치를 점하는 데 실제로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를 적절한 사례들을 선별하여 검토할 경우 사적 부문의 시장화에 의해 추동되고 있는 경제적 계층분화의 체제이행론적 의의를 파악할 수 있다.<sup>13)</sup> 가설적으로 제시하자면, 사적 부문의 시장화의 진척에 따라 형성되는 북한 도시가구의 경제적 계층분화가 비공식적 연결망자원의 불평등한 배분체계와 비조응적 관계에 있을수록 사적 부문의 비공식적 시장화와 도시의 경제적 계층분화는 북한체제 이행동력으로서 적극적 의의를 지닌다는 것이다. 이와 반대로 도시가구의 경제적 계층분화가 비공식적 연결망자원 배분체계와 조응적 관계에 있을수록 사적 부문의 시장화와 경제적 계층분화는 북한체제 이행에서 적극적 의의를 지니지 못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작업은 필자가 2003~2007년에 실시한 심층면접조사의 자료들 중 일부를 선별 분석하는 식으로 처리했다.<sup>14)</sup> 설문조사 등을 통한 자료수집방식과는 달리 심층면접조사에 의존했기 때문에 경제적 계층별로 유형화될 수 있는, 예상 가능한 모든 사례들을 포괄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이 작업은 한계가 있다.<sup>15)</sup> 그렇지만 경제적 계층분화와 연관된 개인의 비공식적 경제활동을 파악하는 데에는 심층면접

---

13) 1980년대 중반 헝가리에서 국가배정 주택의 다양한 비공식적 사유화경로와 관련하여 사회주의체제하에서 불평등하게 배분된 개별가구들의 비공식적 연결망자원이 이행기 경제적 계층화에 미친 효과에 주목하는 글로는 Judit Bodnar and Jozsef Borocz, "Housing Advantages for the Better-Connected?: Institutional Segmentation, Settlement Type and Social Network Effects in Hungary's Late," *Social Forces*, Vol.76, No.4(1998) 참조.

14) 피면접자 코딩 관련 기초 인적 사항과 면접조사 관련 기타 참고사항은 이 글의 말미에 부표로 제시했다.

15) 특히 국가기관의 중·상급 간부층에 해당하는 지배엘리트의 비공식적인 시장연루방식에 관한 구체적인 증언은 거의 확보하지 못했다.

조사가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이 작업에서는 제한된 표본집단이나 표집방법의 제약 등으로 인해 약간 불완전하기는 하지만, 약식 생애사적 자료 분석에 기초하여 경제적 계층별로 몇몇 사례들을 검토하고자 했다.<sup>16)</sup> 수집자료의 표본 대표성의 한계 때문에 아래 사례들은 ‘부분적으로만’ 유용한 유형적 사례에 포함될지도 모른다.

### 3. 도시가구의 경제적 계층분화와 비공식적 연결망자원의 역할

#### 1) 경제적 하층 가구: 가용 비공식적 연결망자원의 결여

면접조사 결과에 비춰보면, 사적 부문 시장화의 진척과정에서 경제적 하층으로 편입된 도시가구들의 경우 대체로 정치적 신분체계의 최하층 가구나 하층 가구에 속하고, 사적 부문의 시장경제활동에 도움이 될 만한 비공식적 연결망자원을 결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1) 정치적 신분체계의 최하층 가구 사례

가족사적 문제로 정치적 신분체계상 최하층 가구에 속한 B3은 고

---

16) 이 점과 관련하여 ‘사회계보학적’ 개별사례연구 방식과 심층면접조사를 결합해서 사회주의체제 시기를 중심으로 놓고 가족의 세대 간 사회적 계층이동의 궤적을 추적한 Daniel Bertaux, “Transmission in Extreme Situations: Russian Families Expropriated by the October Revolution,” in D. Bertaux and P. Thompson(eds.), *Pathways to social class: A Qualitative approach to social mobility*(Oxford: Clarendon Press, 1997); Rudolf Andorka, “Social Mobility in Hungary since the Second World War: Interpretations through Surveys and through Families Histories,” *Ibid.* 참조.

난의 행군 시기에 국가공급체계가 붕괴된 뒤에도 직장인 편의봉사망에 출근하여 ‘아매’ 봉사료 수입으로 어렵게 가족의 생계를 유지했다. ‘아매’로 본인과 같은 기술을 익힌 사람들이 늘어나서 생계유지가 더 어려워진 뒤에도 B3은 여전히 이 일에만 매달렸다. B3이 생계유지 압박이 가중되는데도 공식직업을 벗어나지 못했던 것은 직접 시장 장사에 뛰어들 만한 적은 밑천도 마련할 만한 여력이 없었고, 또 돈벌이가 될 만한 어떤 특별한 기술이나 전문지식이 없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렇지만 이런 사정들보다 좀 더 중요한 이유는 생계를 위해 ‘방조’를 받을 만한 비공식적 연결망자원이 없었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만일 장사 밑천을 빌릴 수 있었거나, 안면관계로 다른 일 자리를 소개받거나 동업할 기회를 갖게 되었다라면 B3은 사적 부문의 비공식적 ‘부업’에 본격적으로 진출했을지도 모른다.

가족사적 배경이나 직업경력 등에서 B3과 유사한 B5는 공식직업에 의존해서 생계를 꾸리는 게 한계에 부딪히자 영세한 장마당 빵장사로 전환하여 장사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B5의 경우에도 장사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비공식적 연결망자원이 없었기 때문에 경제적 하층에서 탈피하기가 어려웠다고 한다.

B3과 B5가 경제적 하층 가구로 편입된 데에는 개인의 수완과 같은 시장적응능력 부족 같은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렇지만 가족의 출신성분이나 토대문제로 인해 이들이 기존 정치적 신분체계의 최하층에 속하게 됨에 따라 다른 가구들에 비해 비공식적 연결망자원을 축적할 기회가 구조적으로 거의 주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 (2) 정치적 신분체계의 하층 가구 사례

정치적 신분체계상 ‘기본군중’에 속하는 ‘사민’(비간부 일반주민)가 구 ‘세대주’(가족 생계유지의 주된 책임자)들도 특출한 시장적응능력을 갖고 있지 않고, 가용할 수 있는 비공식적 연결망자원이 없을 경우 대체로 경제적 하층으로 편입되고 있다. 행정 부문 말단 부원을 세대주로 둔 B8은 부모의 ‘방조’를 받아 가족의 생계를 꾸려나갔다. B8은 세대군인 출신으로 생활에 쪼들리면서도 여느 여성들과는 달리 장사 등과 같은 부업활동을 할 엄두를 전혀 내지 못했다. 그 대신 B8은 부양으로 있으면서 세포비서 일을 했다.

B6과 C4의 경우 아내들이 장마당 장사 등의 부업을 하고, 본인들은 ‘8·3’ 노동자나 자재지도원이나 운전수 등으로 공식 직업을 유지하면서 소규모 밀수나 중기 되거리장사 등 사적 부업을 했다. 이들도 청년 동맹 초급단체 위원장도 하고 입당도 했지만, 출신성분이나 토대면에서 B8과 마찬가지로 별로 내세울 게 없었다. 이들 세 사람의 공통점으로 직업경력상 시장 장사 같은 상행위에 뛰어들기가 어려웠다는 점을 들 수 있을 것이다.<sup>17)</sup> 그러나 이런 개인적 성향과 별개로 이들은 위의

---

17) 이런 사례에 해당하는 하층 가구들의 경우에 ‘세대주’ 등의 공식 직업에서 설령 어떤 수입이 생긴다고 할지라도 가족의 생계유지에 거의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세대주 본인이나 나머지 가족 구성원들의 사적 부업활동이 가족의 주된 수입원을 구성한다. 예컨대 부양여성이 시장에 ‘출근’해서 영세한 음식장사나 잡화 소매장사 등을 해서 번 하루 수익금을 가지고 가족의 하루 끼니 분 식량을 구입하는 가구들이나 신발, 옷가공 등 잡다한 부류의 영세 가내 수공업 등으로 근근이 생계를 유지해나가는 가구들이 전형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시장에 생계를 의존하는 여러 부류의 영세한 ‘달리기’들이나 옷이나 중기 등의 ‘거간꾼’과 ‘딸딸이’, 파지·파고무·공병 같은 폐품 수집상이나 주로 외화벌이나 주민노력동원사업과 관련된 ‘임시노력’이나 ‘임대노력’ 등과 같은 다양한 일고(日雇) 형태로 생계를 꾸려나가는 가구들도 이런 부류에 해당한다.

최하층 가구들과 마찬가지로 본인들의 시장활동에 도움이 될 만한 비공식적 연결망자원을 거의 갖고 있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2) 경제적 중간층 가구: 비공식적 연결망자원의 차별적 효과

경제적 중간층에 속한 몇몇 가구의 사례를 보면, 해당 가구의 정치적 신분체계상의 위치에 따라 비공식적 연결망자원의 효과가 상당히 차별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정치적 신분체계의 최하층 또는 하층에 위치하면서 경제적 중간층에 속한 가구들의 경우 상이한 계층체계 간 ‘이동’에서 비공식적 연결망자원보다도 개인의 시장적응능력이 훨씬 더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다. 이와 달리 정치적 신분체계의 중·하층에 속해 있으면서 경제적 중간층에 속한 가구들의 경우 개인의 시장적응능력보다 해당 가구의 비공식적 연결망자원이 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 (1) 정치적 신분체계의 최하층 가구 사례

1990년대 정치적 ‘숙정’과정에서 가족이 정치적 화를 입은 B4는 변화된 개인의 정치적 신분의 제약 속에서도 1990년대 후반 이후 유희 지방산업공장의 일부 설비를 비공식적으로 빌리거나, 자기 집에 소수 타인 노동력을 항상적으로 고용해서 작업을 할 정도로 옷 임가 공사업에서 성공적이었다.<sup>18)</sup> 그녀의 이런 시장경제활동에는 몇 가지 조건이 유리하게 작용했다. B4는 결혼 전에 회계일을 했고, 1980년대

---

18) 물론 본인이 자재를 제공하고 공장에 임가공료를 지불하는 식이었지만, 공식적으로는 공장 자체적으로 자재를 조달하고 설비를 가동하여 생산실적을 낸 것으로 처리된다.

에도 8.3으로 옷 가내임가공 부업을 해서 장사 밑천을 마련해두었다. 또 가족 가운데 국가물자 관리업무에 종사한 사람이 있어서 경제적 이해타산을 따지는 일에 빨리 눈을 떴다. 이런 조건들이 결합되어 B4는 사적 부문의 시장적 관계에 성공적으로 적응했다.

고급 인텔리 집안 출신이지만 정치적 신분체계상 B4와 유사한 처지에 놓이게 된 A3은 “정치적으로 낙오자 된 집안이니까 이제는 돈을 벌어야 당당하게 나설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옷 가공업에 뛰어들었다. A3이 받은 전문고등교육이나 ‘반시장적인’ 집안 분위기는 시장적 경제활동과 동떨어진 것이었다. 그렇지만 A3은 옷가공기술을 습득하기 위해 관련기술서적을 연구하고, 시장유통경로를 연구하고, 경험자한테 조언을 구하는 등 사전준비를 했다. B4와 마찬가지로 집에 모이둔 약간의 초기 밑천을 활용할 수 있었던 것도 도움이 되었다. 이렇게 해서 A3은 사업 밑천을 늘려서 나중에는 천 통구리 도매장사로 나설 정도로 성장했다.

이와 달리 가족의 정치적 과오로 인해 차별을 받은 PS-1-1은 ‘고난의 행군’ 시기에 본인이 가족의 생계를 떠맡아야 할 정도로 어려움 처지에 놓였다. 그래서 ‘직위 없으면 돈이라도 있어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금속밀매로 시작해서 돈장사, 고급옷장사 등을 해서 중간층의 소비생활을 누릴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모(母)로부터 물려받은 ‘장사꾼 기질’이 본인의 장사에 크게 도움이 되었다고 한다.<sup>19)</sup>

---

19) 이런 유형의 사회적 이동의 좀 더 극적인 사례는 한 유력한 수산외화별이끼지 ‘처녀’의 경우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빈궁한 가정형편 때문에 중학교도 제대로 졸업하지 못하고, 토대적으로도 미해명상태인 한 여성이 돌격대에 자원 진출해서 공구관리원을 하면서 현물경제감각을 체험적으로 익힌 뒤에 사회급양부문의 출납원과 상업학교 등을 거쳐서 외화별이끼지 노동자로 입직했다. 그 후 이 여성은 ‘다방면으로’ 사업능력을 인정받아 기지장직을 맡게 되었다(C2-2).

이 세 가구 사례는 정치적 신분상의 제약과 그에 따른 사회적 차별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노력과 뛰어난 ‘사업수완’ 덕택에 경제적 중간층 가구로 편입된 경우들이다.<sup>20)</sup> 달리 말하면 ‘고난의 행군’ 시기에 정치적 신분체제상의 최하층 또는 하층 가구도 사적 부문의 경제활동에 적극적으로 뛰어들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었다는 것을 뜻한다. 이 가구들과 앞의 경제적 하층에 속하게 된 가구들의 주된 차이들 중의 하나는 이 가구들은 원래부터 정치적 신분체제의 (최)하층에 속했던 게 아니라는 점과 따라서 앞의 경제적 하층 가구들과 달리 초기 장사 밑천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또 이 가구들은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비공식적 연결망자원은 정치적 신분의 변화와 함께 거의 상실했다.

그렇지만, B4는 일감을 공장에 임가공 주기 위해서는 공장 간부들과 안면관계를 만들어야 했고, A3도 시장유통관련 실무지식을 얻기 위해 마찬가지로 경험이 풍부한 고수 판매자와 안면을 터야 했다. PS-1-1도 돈장사 거간이나 고급옷 판매를 위해 거주지 도시급의 중간 간부집 부인들을 개별방문할 수 있을 정도로 안면관계를 구축해야 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경제적 중간층에 진입한 이 가구들이 현재 계층적 위치를 유지하기 위해 비공식적 연결망자원 축적을 위해 부단히 노력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노력은 아래 가구 사례들과 비교하면 쉽게 짐작할 수 있듯이, 이 가족들을 압박하는 정치적 신분체제의 제약을 벗어나기가 어려웠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20) 예컨대 이들은 시장에서 유행하거나 수요가 많아질 의류를 남보다 빨리 전망하고 대응하는 것과 같은 사업수완을 갖고 있었다. 이들과 유사하게 1990년대 말에 라선에서 직접 천을 사다가, 몇 사람을 고용해서 여성복 임가공사업을 해서 돈을 벌었던 A4는 ‘유행이 바뀔 때 이 유행을 빨리 따라가서 받아 무는 데는 1등’이었고, ‘디자인을 생각해 내느라고 잠을 못 잤을’ 정도로 ‘머리를 많이 써서’ 판매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할 수 있다고 했다.

## (2) 정치적 신분체계의 중·하층 가구 사례

공식적으로는 조그만 사업소의 지도원으로 적을 걸어 놓은 A1은 하급 행정간부에 해당한다. A1은 ‘고난의 행군’ 시기에 가재도구를 팔아 약간의 밑천을 만들어 소규모 산업용 전기설비 제작 및 수리보수를 부업으로 해서 가족의 생계를 어느 정도 여유 있게 꾸릴 수 있었다.<sup>21)</sup> 본인의 공식 직업경력에서 축적된 전문기술이 이 부업의 시장 우월적 지위를 확보하는 데 일차적인 도움이 되었다. 그러나 이런 개인 능력보다도 이런 유형의 부업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소규모 설비를 자체로 마련해서 공장 등에 설비 등록해야만 하는 일이다. A1은 이 문제를 혈연적 연결망자원을 동원하여 어렵지 않게 해결했다. 또 이런 부업활동이 직면하게 되는 사법안전기관의 단속이나 검열을 무마하는 데에도 이 자원은 매우 요긴하게 사용되었다. A1이 향유했던 이런 비공식적 연결망자원에 기반한 사업상의 ‘특혜’는 유력한 가족과 친인척의 토대에 힘입은 것이다.

C1은 A1과 같은 가족의 특수한 토대가 없었지만 본인의 공식 직업 경력을 심본 활용하여 가족의 생계를 어느 정도 여유 있게 꾸려간 경우에 해당한다. 자신의 재능으로 기술계통 전문학력을 보유하게 된 C1은 편의봉사사업소의 수리공으로 근무하면서 비공식적으로 중기 장사를 해서 적지 않은 돈을 모았다. 이후 그는 비상근 중간 행정간부에 해당하는 시급건설대상 지휘부 성원으로 근무하면서 자비를 들여 ‘합법적 공간을 이용해서’ 가공식품 생산설비를 마련했다. 나중에 사실상 본인의 소유가 된 이 설비를 군부대에 등록하고, 부양여성 ‘노력

---

21) A1은 이런 부업을 하는 데에는 상급기관이나 사법안전기관의 통제가 상대적으로 느슨한 소규모 공장이 더 낫다고 판단해서 영세한 지방산업공장으로 적을 옮겼다.

폰드'를 받아 '개인사업'을 했다. C1은 A1과 달리 유력한 비공식적 연결망자원이 없었기 때문에 검찰에 자신의 설비를 몰수당한 경우도 있었다. 그렇지만 공식 직업활동을 발판으로 해서 비공식적 연결망자원을 확충하고, 이를 '개인사업'에 활용했던 수완 덕택에 C1은 사적 부문의 시장화에 적극적으로 적응할 수 있었다.

A1이나 C1과 대조적으로 대기업소의 중간행정간부인 PS-2-1은 추수기에 주변 농장에 나가 쌀을 소량 구입하여 보관했다가 이듬해 춘궁기에 시장에 내다파는 임시적 '부업'을 했고, 가족의 다른 구성원도 중국산 공업품 보따리장사를 해서 가구생계를 보조했다. PS-2-1도 중간층 정도의 소비생활을 유지하기는 했지만, A1이나 C1에 비해 여유가 없었다. PS-2-1은 공식직업 여건상 A1이나 C1처럼 비공식적인 자영제조업에 종사할 수 없었지만, 공식직업상의 권한을 이용하여 비법적인 방식으로 가구수입을 보전하는 데에도 적극적이지 못했다. 이는 PS-2-1이 해외귀국자출신으로서 A1이나 C1과 같은 비공식적 연결망자원을 구축하기도 어려웠을 뿐 아니라, 출신성분상의 제약을 의식하여 일상생활에서 신중하게 처신했기 때문이다.

이상의 두 부류 사례들은 사적 부문의 경제적 계층체계 내에서 동일한 중간층 가구에 속하지만, 비공식적 연결망자원의 작동범위나 사업대상 등에서 질적으로 차이가 난다. B4, PS-1-1, A3과 비교하면 A1과 C1의 비공식적 연결망자원은 이들의 사적 부문 경제활동 유지에 불가결한 역할을 했을 뿐만 아니라, 그 효과도 상대적으로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B4, PS-1-1, A3의 경우 비공식적 연결망자원이 상대적으로 빈약하다. 예컨대 이들의 경우 비공식적 연결망의 구축, 즉 '개인사업'(벼물 채공) 대상이 동(洞) 주재보안원 정도에 한정되는 데에서도

알 수 있듯이 자신들의 사적 경제활동을 ‘보호’받을 수 있는 비공식적 연결망자원이 매우 취약하다.<sup>22)</sup> 따라서 이들의 사적 ‘부업’은 사법안 전기관 등의 자의적인 통제에 상대적으로 더 취약하다.

A1이나 C1의 비공식적 연결망은 적어도 시급 권력기관 정도까지는 유효 범위 내로 포괄할 수 있다. 특히 A1의 ‘비사회주의적인’ 개인사업방식은 정치적 신분체계의 상층과 연계된 혈연적 연결망의 ‘비호’가 없이는 불가능했을 것이다. 반면에 A1과 같은 비공식적 연결망자원이 없었기 때문에 사안의 ‘정치적’ 비중 면에서 상대적으로 경미한 C1의 개인사업은 타격을 받기도 했다. 사적 부문 경제활동의 보호막으로서 비공식적 연결망자원의 강력한 효과는 정치적 신분체계의 위계적 지배구조에 뒷받침되고 있는 셈이다. PS-2-1의 사례는 이 점을 역설적으로 드러내준다. PS-2-1은 정치적 신분체계상 A1이나 C1과 의견상 지위가 유사한데도 실제로는 ‘모호한’ 신분 때문에 비공식적 연결망자원이 제약되고 있기 때문이다.

### 3) 경제적 상층 가구: 비혈연적 연결망자원의 효과와 한계

경제적 중간층 가구의 사례는 본인의 시장적응능력과 비공식적 연결망자원의 축적 위에서 공식직업 공간을 잘 활용할 경우 사적 경제활동을 통해 개별가구가 경제적 상층으로 진입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그런데 외화벌이일꾼들의 사례를 제외하고는 경제적 상층에 진입한 가구들의 사례를 면접조사를 통해 확인하기는 쉽지 않다.<sup>23)</sup>

---

22) 예컨대 ‘보안원이 장사꾼 따라다니면서 목조리하고 그러니까 나는 동복도 해 입히고, 숭바지도 해서 입히고, 아이들 옷도 해주고’ 하는 식이다(B4).

23) 당연한 일이지만 풍족한 개인소비생활을 누리고, ‘애국적 소행’을 드러내 보이

이런 사정을 감안하면서 몇몇 사례를 통해 볼 때 경제적 상층 가구의 경우, 개인재산 증식은 비공식적 연결망자원, 특히 혈연적 연결망자원에 의해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1) 정치적 신분체계의 최하층 가구 사례

좀 과장된 표현이기는 하지만 C3에 의하면, ‘자기 집에 돈이 얼마큼 있는지를 모를’ 정도로 축재를 해서, 지역사회에서 ‘큰 돈주’로 소문난 사람(여기서 편의상 이 사람을 X라고 칭한다)이 있다.<sup>24)</sup> X는 지주집안

---

는 ‘책무’에 태만하지 않을 경우 일정한 사회적 ‘평가’도 받을 수 있는 경제적 상층 가구는 ‘특별한 사정’에 처하지 않는 이상 굳이 자신의 삶의 터전을 이탈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 24) 돈주는 ‘개인재산을 화폐로써 가지고 있는 사람’(C2)이라고 할 수 있지만, 개인재산의 보유 규모 등이 은폐되고 있는 사회에서 돈주를 정의하기에는 모호한 측면이 있다. 돈주의 개인재산 보유 대역이 점차로 넓어지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상대적인 준거 기준들이 뒤섞이면서 돈주라는 말은 제대로 규정하기가 더 곤란해졌다. 실제로 한 도시의 유관기관에서는 비사검열에 들어가기 전에 돈주의 개인재산에 대한 사전 요해작업을 할 때 인민반장이나 주민들을 통해서 장악한 정보에 기초해서 대략 추정을 했고, 100만 원대 이상의 ‘현금’을 할 경우 대체로 해당 액수의 열 배 정도 되는 개인재산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짐작했다고 한다(C3). 또는 실제로 움직이는 물동량을 금액으로 환산하여 그 세 배 정도를 돈주의 현금재산 보유액으로 추정하기도 한다(RA5). 이처럼 돈주라는 존재의 경제적 계층범주를 구분하기는 모호하지만, 대체로 ‘고난의 행군’이 시작되고 1~2년 지나면서 일반 주민들 사이에 점차로 알려지게 된 것으로 보인다(C3, C2-1). 돈주들은 일반적으로 외화별이회사 등에 ‘입직’하여 적을 걸어놓고 개인사업의 합법적 공간을 조성하려는 행태를 보이게 된다. 예컨대 이해관계의 다툼 때문에 드물기는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몇 사람이 공동 투자하는 식으로 해서 폐기대상에 해당하는 수산사업소의 노후 어선을 구입하여 내부설비를 교체하고 보수하여 다른 기업소의 부업선으로 이관등록한 뒤 일정한 어획량의 처분권을 담보로 외화별이에 나서는 사례가 있다. 또 농장에 비료나 농업기자재 등을 공급해주고 수확한 남새나 식량으로 돌려받거나, 탄광에 종업원 식량과 보수용 부품이나 설비를 제공해주고 생산된 석탄의 일정량을 받아서 이것들을 시장에 내다가 처분하는 것과 같은 사례가 있다. 또 대기업소 무역지도원으로 진출하여 자재 등의 국가계획분을 보장해주고, 그 과정에서

출신이고 선대가 치안대에 연루되었던 ‘반혁명적 적대분자’ 출신이었다. 그래서 그는 오히려 주변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고난의 행군’ 이전에 배낭장사를 하기 시작해서 이제는 큰 상점을 얻어놓고 컨테이너로 중국산 옷이나 피복 통구리를 수입해서 판매할 정도로 개인재산을 모았다. X는 정치적 판단과 생존능력도 뛰어나서 군대에다 적을 걸고 장사를 했다. 따라서 사회 쪽의 ‘비사업열 합동그루빠’들의 단속을 피해서 ‘예외적으로 살아남게끔 되었다’고 한다. 개인 신상 안전을 보장받기 위해서 그는 남들보다 훨씬 이전에 공식적으로 돼지나 콩 같은 군대 후방물자 지원사업이나 발전소 건설지원사업 등을 ‘썰개’해서 감사장도 받아 놓았다. 또 군 간부들한테는 명절 때마다 비공식적인 선물사업을 적극적으로 조직한다고 한다.

이 사례는 당사자의 증언을 직접 수집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X가 자신의 개인사업을 유지하기 위해 어떤 식으로 비공식적 연결망자원을 구축하고 동원했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다. 그런데 X가 ‘종당에는(결국에는) 새로운 경제관리체계가 많이 어려울 때 돈을 국가에다 지원하고’ 입당했고, 한 사업소의 지도원으로 적을 걸어놓았다는 C3의 언급에 비춰보면 X는 ‘돈 있는 사람은 돈으로 애국하라’는 최고권력자의 ‘말씀’이 있는 뒤에 거액의 ‘현금’을 내고 입당한 것으로 보인다. X는 출신성분의 제약으로 인해 자신의 개인사업에 도움이 될 만한 혈연적 연결망자원이 아마도 전혀 없었을 것이다. 따라서 그는 비

---

자기 이익을 챙기는 사례를 들 수 있다. 드물기는 하지만, 특히 재일교포 연구자들에게서 찾아볼 수 있는 경우로 규모가 작은 식료공장과 같은 지방산업공장이거나 탄광기계공장이나 갱목사업소 등의 지배인으로 직접 진출하거나 대리인을 내세워 운영하는 사례도 있다. 이런 경우는 개인의 경제적 실리보다는 돈으로 ‘사회적 명예’와 생활상의 편의를 보장받는 게 더 중요한 동기로 작용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C1-1, C2, C3-1, PS-2-1).

혈연적 연결망자원을 확충하는 데 상당한 금전적 투자를 했다고 볼 수 있다.<sup>25)</sup> 그러나 X와 같이 정치적 신분체계의 최하층 가구가 경제적 상층으로 ‘상승이동’해서 개인재산을 증식하는 데 동원할 수 있는 비혈연적 연결망자원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내세울 게 없긴 하지만 정치적 신분이 X보다는 나은 A5의 사례를 보면 이 점은 좀 더 분명해진다.

## (2) 정치적 신분체계의 하층 가구 사례

A5는 고등중 학력에다 사회 진출 초 시기에 ‘막노동자’로 배치받았을 정도로 출신성분이나 토대 면에서 내세울 게 없었다. 그는 ‘고난의 행군’ 때에 소규모 중기장사로 경험을 쌓고 약간의 밑천을 마련한 뒤, 편의봉사사업소 수리공으로 적을 옮겨 본격적으로 중기장사로 진출했다. 경제적 상층에 속하는 다른 사람들이 그러하듯이 그도 중기장사를 하여 상당한 액수의 달러를 보유했다. 그런데 그는 ‘기업소 명의로 자기 돈을 투자해서 식당을 운영할 기회가 있었지만 도당 같은 힘 있는 곳을 끼지 않는 한 나중에 국가에서 회수해 가면 투자한 돈만 없어지는 꼴이 되기 때문에’ 자기 자본을 증식할 수 있는 기회를 포기했다. A5는 혈연적 연결망자원이 ‘안받침’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신이 의존할 수 있는 비공식적 연결망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

25) 함북이나 함남의 유력한 돈주들 가운데 일부가 수백만 원 어치 이상의 인민생활 공채를 구입한 공로로 노력영웅 칭호나 감사장을 받은 것이나, 헤산의 한 외화벌이 여성이 여맹의 여성호 탱크 제작비용으로 318만 원을 ‘바친’ 것도 유사한 사례에 해당한다(PS-2-1, D2). 구체적으로 확인하기는 곤란하지만, X와 같은 이런 정치적 하층신분 출신 돈주들의 비공식적 연결망자원으로서 이들에게 물품을 공급해주는 중국인 ‘대방’(거래상대방)과의 강력한 연결관계를 고려할 수 있다(PS-18-1).

때문이다.

X나 A5가 비공식적인 자영상업이라는 비공식적 ‘부업’에 의해 경제적 상층에 진입한 경우라면, 이들보다 더 일반화된 ‘계층체계 간 상승이동경로’를 국가기관들의 외화별이부문 일꾼들, 그중에서도 수출 ‘원천동원’ 일꾼들에게서 찾아볼 수 있다. 이들은 불가피하게 사적 부문의 불법적인 경제활동에 연루되어 ‘비사회주의적 방식’으로 개인 재산을 증식할 수 있는 기회가 많다.<sup>26)</sup> 또 인사관리상 원천동원 일꾼(지도원이나 과장급)은 정식 무역일꾼과 달리 간부사업 대상이 아니라 노동과 대상이다. 따라서 다른 사적 부문 경제활동 참가자들에 비해 정치적 신분체계의 사민 하층 가구들에서 경제적 상층으로 진입하는 비율이 높다.<sup>27)</sup>

---

26) 북한의 외화별이일꾼은 크게 세 부류로 구분할 수 있는데, 무역관련 전문교육과 외국어교육을 받고 유관 국가기관이나 해외과건 근무를 하는 무역단위 일꾼들, 주로 합영회사나 수출단위 등의 임가공수출에 관련된 경영실무를 담당하는 가공생산단위 일꾼들, 수출원천을 장악·수집하여 무역단위에 넘겨주는 원천동원 일꾼들이다. 원천동원 일꾼들은 소속 외화별이단위에서 연간 개인별 외화별이 달러 액상과제 수행지표만을 받을 뿐 실제 사업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자력으로 해결해야 한다. 따라서 자신의 사업자금을 보전하고 확충하기 위해서 이들은 공식 직업활동의 외피 아래 ‘비법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나갈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개인적으로 ‘카바를 서줄 수 있는’(후견적 비호를 받을 수 있는) 비공식적 연결망자원을 동원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들은 ‘비법적인’ 개인재산 증식에 따른 불안감을 지니고 있고, 감독기관의 재정검열에 대비해서 회계장부를 이중으로 작성하는 것이 관행으로 되어 있다. 이들은 ‘사회주의적인 방식’으로는 계획과제를 수행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돈을 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부터 열까지 100% 비법’으로 자본주의적 방식으로 사업을 전개한다. 그러나 ‘총화 때 재는 자막대기는 사회주의적인 자막대기이기 때문에 완전히 다 걸리게 되어’ 있어서 불안해할 수밖에 없다(PS-6). 대체로 원천동원 외화별이들은 농토산물, 수산물, 일부 광물자원 등의 ‘수출원천’의 장악·수집에 집중되어 있다.

27) 예컨대 돈 많은 귀족자가 어떤 중앙기관의 외화별이회사 도급지사를 내와 본인은 원천동원지도원 직함을 가지고 개인사업을 한다든가, 교화 출소자나 밀수를

이들의 사업세계에서는 ‘사업은 자동차와 전화가 한다’는 말이 널리 퍼져 있을 정도로 기민한 활동성, 자기 사업밑천(또는 투기성 단기자금을 끌어들이는 능력), 비공식적 연결망자원의 축적이 ‘원천동원’ 일꾼이 갖춰야 할 기본요건들이다. 이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비공식적 연결망자원, 좀 더 한정적으로 말하자면 혈연적 연결망자원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실례로 중앙기관 무역회사 원천동원지도원인 B2가 수산물 원천 장악을 위해 함북의 ○○군에 내려가 현지 당기관 간부들과 사업을 한다거나, 또는 다른 어떤 원천동원지도원이 평남의 ○○군에 내려가 어떤 회귀금속 정광을 수집하려고 할 때 ‘친인척관계가 없이는’(친인척관계를 내세워 안면관계를 만들지 않고서는)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다(RA1).

이 사례들은 혈연적 연결망자원과 사민 외화벌이일꾼의 일종의 지대추구활동 사이의 상관관계를 잘 보여주는데, RA4와 같이 당계통의 요직에 가까운 친인척을 둔 경우에는 본인의 정치적 신분이 비당원 하층이라는 것과 무관하게 상관관계가 훨씬 더 강력하게 나타난다. RA4는 말단행정단위의 자재 인수원 정도에 지나지 않았지만 상대적으로 힘 있는 단위들을 제치고 국가적인 생필물자의 일정량을 생산기업소에서 공급받아 그 중 일부를 시중에 비공식적으로 유통시키는 방식으로 별로 어렵지 않게 상당한 액수의 달러를 축적하여 ‘큰 돈주’로 성장했다(RA4-1).

---

해서 많은 돈을 번 ‘망중’이 외화벌이 원천사업소장(기지장)으로 ‘입직’한다든가, 심지어 ‘협잡꾼’과 다를 바 없는 부류가 원천동원지도원의 직을 가지고 활동하기도 한다.

### (3) 정치적 신분체계의 중간층 가구 사례

지방당 외곽단체 간부인 C3의 집안은 가족의 토대가 상당히 ‘ 좋았고’ 정치적 신분체계에서 중간층 정도에 해당한다. 따라서 C3의 혈연적 연결망자원도 대다수 위의 사례 가구들보다는 더 유력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C3은 개인재산을 증식하는 데 비공식적 연결망자원과 함께 본인의 공식직업상 권한을 적절하게 이용했다. 그는 소속부서가 관장하는 공장, 기업소 노동자용 식량, 석탄 등의 확보과정에서 자신의 자금을 투자해서 여분의 물자를 확보한 뒤에 이를 비공식적으로 시장에 유통시키는 식으로 금전적 이득을 얻었다. 그는 가족 중 한 사람이 되거리장사에 필요한 수입공업품 물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자신의 비공식적 연결망자원을 활용하기도 했다.

이런 식으로 경제적 상층에 진입한 C3의 경우 개인재산 증식과 관련해서 위의 사례들과는 좀 다른 면이 있다. 우선 그는 공식업무를 수행하면서 그 안에 비공식적인 공간을 만들어 개인사업을 했다. 그는 공식직업의 안정적 유지가 중요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말밥’에 오르내릴 정도로 무리하게 공식업무공간을 부업활동에 집중하지는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C3의 경우 가구의 주된 비공식적 부업활동은 그가 구축해 놓은 비공식적 연결망자원을 활용한 가족의 다른 구성원의 몫이었다. 또 C3은 공식직업을 이용한 ‘비법적인’ 개인재산 증식문제로 많이 불안해하지 않았다. 이는 그가 부업활동에 신중을 기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유력한 혈연적 연결망자원을 갖고 있기 때문이기도 했다.

그런데 간부층의 사적 부문 경제활동 참가양태와 관련해서 볼 때 C3의 사례는 ‘권세를 쓸 수 있는’ 일부 힘 있는 국가기관의 중간간부들에게 부분적으로만 해당되는 것 같다. 앞의 PS-2-1처럼, ‘힘없는’

중간 행정간부가 가족의 생계를 위해 사적 부문과 연계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와 대조적으로 ‘먹을 알’이 있는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간부라면 굳이 C3과 같이 이런 식의 ‘정치적 모험’을 하지 않더라도 ‘들어오는’ 비공식적 부수입을 가지고 어느 정도 여유 있는 소비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RA1).<sup>28)</sup>

#### (4) 비공식적인 개인재산 증식, 축장의 현재적 제약

경제적 상층 가구들과 이들의 정치적 신분체계 내의 지위 사이의 연관성을 보여주는 위의 세 가지 부류의 사례는 앞에서 검토한 경제적 하층·중간층가구 사례들의 시사점을 좀 더 분명하게 보여준다. 무엇보다도 사적 부문의 비공식적 시장경제활동을 통한 개인재산의 규모가 커질수록 해당 개인이나 개별 가구가 상대적으로 더 안정적인 조건에서 개인사업을 유지하거나 확장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정치적 보호막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강력한 비공식적인 연결망자원을 보유해야 한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개인이나 가구의 정치적 신분이 ‘불량’할수록 비공식적 연결망자원의 효과도 대체로 감소한다고 볼 수 있고 또, 정치적 신분이 ‘불량’하지 않을 경우에도 유력한 혈연적 연결망자원이 없으면 개인재산을 안정적으로 증식하기가 어렵다는 점도 알 수 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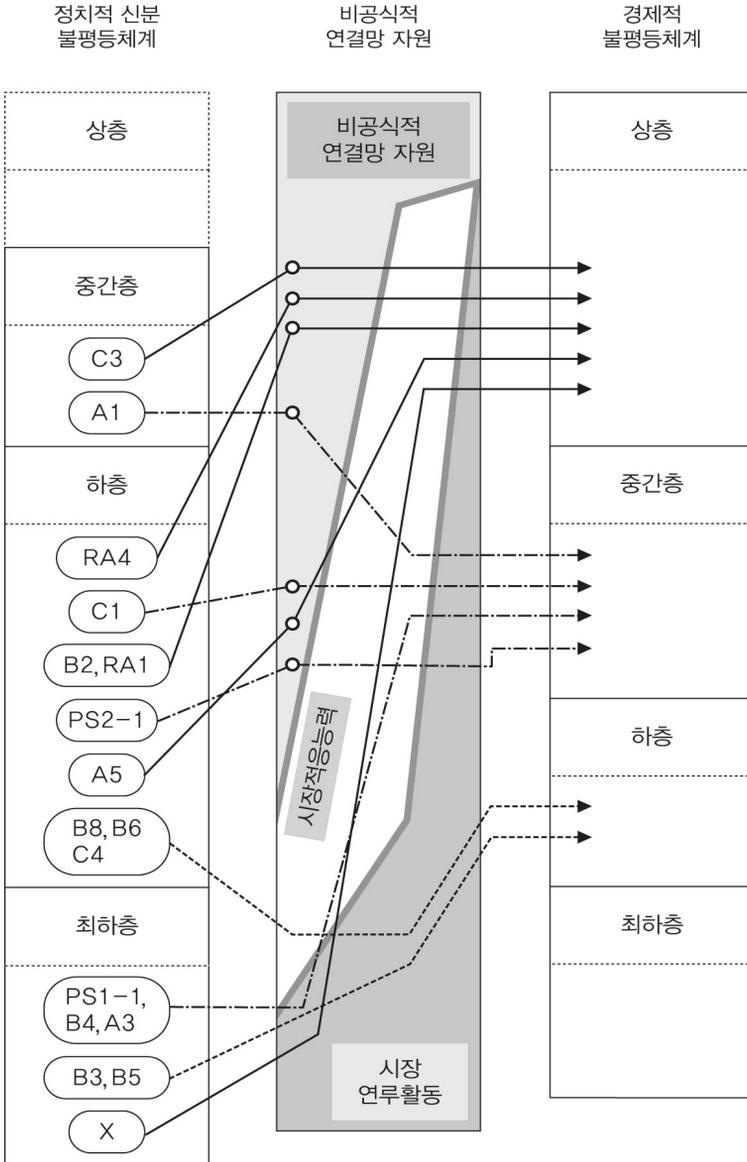
28) ‘특별한 사정’에 따라서는, 예컨대 힘 있는 중앙급 외화별이기관의 간부가 원천 동원자금의 일부로 자기 개인자금을 우회적으로 밀어 넣고, 나중에 투자수익의 일부를 가져가는 행태도 있다(RA3).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중간간부 정도만 되더라도 본인이 아닌 가족 구성원의 직접적인 사적 경제활동 참가도 신중하게 접근하는 경향이 있다. RA4만 하더라도 가까운 친척인데도 자기 개인사업의 비공식적인 후견인 역할을 해 준 ‘실력자’ 간부에게 반드시 정기적으로 ‘인사’를 차렸다.

<그림 1>은 위에서 검토한 개별가구들의 이중적 불평등체계 내 계층적 위치 변화 사례들을 도식화한 것이다. <그림 1>에서 계층적 위치 변화 경로들은 일견 일관성 없이 복잡한 양상을 보여주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렇지만 실제로는 개별가구의 ‘정치적 신분체계 내의 위치 — 비공식적 연결망 자원의 크기 — 경제적 불평등체계 내의 위치’ 사이에는 일정한 경향성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위 사례들과 같은 몇 가지 부류의 사민 출신 경제적 상층 가구의 개인재산 증식이나 또는 유력한 혈연적 연결망자원에 기반한 정치적 신분체계의 중간층(간부)가구의 개인재산 증식은 어떤 체제이행론적 의미가 있는 것일까. 단편적이기는 하지만 다음 세 가지 일화는 이 물음에 답하는 데 도움이 된다.

- ① 부친이 정치범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고, 본인도 범법행위로 교화출소 경력이 있는 ○○군의 ‘막강한’ 외화벌이 기지장은 2005년경에 국가에 1만 달러를 현금으로 기부했다. 군당에서는 이 기지장이 노력영웅 칭호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사업을 하면서, 비공식적으로 군민들에게도 이 일을 선전했다. 그런데 이 기지장의 이력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가족사가 드러나자, 인민들의 반향이 급변하여 “(기지장은) 현재 돈이 많으니깐 나쁘다. 정치범의 자식이고, 교화까지 갔다 왔는데,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가”라는 식으로 군내 여론이 악화되어 노력영웅 칭호를 받지 못했다(PS-14).
- ② 2003년에 중앙에서 파견된 비사 합동그루빠 검열 당시 혜산시 위연철도병원장 집에서 은닉해 놓은 내화(북한돈) 4억 원이 적발되자, 이 병원장이 자살한 일이 있었다. 또 같은 검열그루빠가 양순회사

<그림 1> 과도기 이중적 불평등체계 내 개별가구들의 계층적 위치 변화  
(본문 예시 개별가구들)



(해산백화점)와 연계하여 중국천 수입장사를 크게 했던 한 여자 집에서 내화 1억 5,000만 원을 적발했다. 그런데 이 돈은 중국거래선과 연계된 출처가 비교적 분명한 돈이었지만 ‘국가가 이 돈을 통째로 저금을 시켰다’(PS-18-1). 즉, 국가가 사민의 적지 않은 개인 재산을 사실상 무상몰수한 셈이었다.

- ③ 1997년 무렵에 한 특수단위의 해외지사장으로 장기간 근무한 무역일꾼은 소환되어 들어올 때 상당히 많은 액수의 달러를 밀반입해와서 불법적으로 축장했다고 한다.<sup>29)</sup> 이 사람은 귀국한 뒤에 어떤 중앙국가기관에 근무하는 친척에게 이 돈의 일부를 빌려주었다고 한다. 그런데 이 친척이 관리를 잘못하는 통에 보위사령부가 이 돈의 출처를 추적하게 되고, 결국 이 무역일꾼은 일종의 국가공금 횡령죄로 피체되어 처형되었다고 한다(RA2).

위 ①, ②의 일화는 앞에서 본 경제적 상층 가구들의, 사적 부문 시장화를 매개로 한 개인재산 증식이나 화폐축장이 정치적 신분체계에 기초한 국가의 지배권력에 의해 어떤 식으로 제약되고, 또 제압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이 일화들의 상황적 조건에서는 국가권력의 (사법적) 사정권 안에 들어온 정치적 신분체계 하층 또는 중간층 가구의 비공식적 연결망자원이 무력화되는 것을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 이 경우 혈연적 연결망자원도 해당 가구나 개인을 보호하는 데에는

---

29) 이 사건이 발생했을 당시에 주변 사람들 사이에는 그가 ‘1,000만 달러를 모체에 예금하고 있었다’는 소문이 돌았다고 한다. 당연한 것이지만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이런 ‘사건’은 정치적 신분이나 공식직급이 유사한 집단 내에서만 ‘소리 없이’ 알려진다.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위 ③의 일화는 이 글에서 사례로 검토할 수가 없는, 정치적 신분체계의 상층 구성원에 의한 비법적인 개인재산 축장이 적발될 경우 해당 가구나 개인의 ‘정치적 생명’의 제거뿐 아니라 물리적 절멸까지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 일화와 같은 지배엘리트의 개인재산 불법은닉죄에 대한 처벌방식은 고급 무역·행정일꾼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1990년대 말에 보위사령부는 사리원시당 책임비서를 내사하여 그가 금 4kg를 불법은닉한 것을 적발했다고 한다. 또 개천시 안전국장도 금 8kg를 불법은닉한 것을 적발했다고 한다. 해당 책임비서는 종파로 몰려 책벌을 받고, 안전국장은 교화형을 받고 복역했다(RA5).

이 일화는 정치적 신분체계의 상층 핵심인자까지도 세칭 ‘당자금’으로 알려져 있는 최고권력자의 ‘혁명자금’에 귀속되어야 할 국가재산을 횡령한 것이 드러날 경우에는 가차 없이 처벌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런데 북한에서 주택과 같은 집합적 소비재의 사용권이냐 일상적인 소모성 소비물자, 또는 소액의 가구보유 현금 등과 같은 공식적인 의미의 ‘개인재산’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국가재산일 것이다. 그렇다면 적어도 현재 국면에서는 사적 부문의 비공식적 시장화를 매개로 한 불법적이면서도 실질적인 개인재산 증식이 지닐 수 있는 체제이행 동력의 형성은 제약될 수밖에 없다.

#### 4. 맺음말

1990년대 말 이후 북한 주요 도시들에서 당국의 억압적인 정책에도 불구하고 급속하게 진척된 시장화에 수반된 경제적 계층분화의 체제

이행론적 의의를 규명하고자 한 이 글에서는 몇 가지 점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현재 북한의 사회적 불평등체계는 기존 정치적 신분체계와 시장화에 추동되는 경제적 불평등체계가 부분적으로 중첩되어 있는 과도기적 양상을 지니고 있다. 두 가지 불평등체계가 부분적으로 ‘중첩’되어 있다는 것은 외견상 공적 부문과 사적 부문이 각기 정치적 신분체계와 경제적 불평등체계에 의해 지배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과 달리 실제로는 상당히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을 뜻한다.

둘째, 두 불평등체계의 밀접한 내적 연관성은 도시가구들의 계층체계 간 ‘계층적 위치의 이동’(두 가지 계층적 위치의 동시간대적 차지(positioning))이 정치적 신분체계에 의해 개별가구들 간에 불평등하게 배분된 비공식적 연결망자원을 매개로 해서 규정되는 경향이 강하다는 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치적 신분체계의 최하층, 하층 가구로 내려갈수록 일반적으로 사적 부문의 시장경제활동에 도움이 될 만한 비공식적 연결망자원이 별로 없는 반면에, 중간층 가구로 올라올수록 유력한 비공식적 연결망자원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셋째, 비공식적 연결망자원, 특히 혈연적 연결망자원이 강력할수록 사적 부문의 시장경제활동을 통해 개인재산을 증식하여 경제적 상층에 진입하기가 더 쉽다. 그러므로 강력한 비공식적 연결망자원을 동원하는 데, 정치적 신분체계상 하층이나 최하층에 비해 단연 유리한 중간층 이상이 경제적 상층 가구의 다수를 구성한다고 볼 수 있다. 그렇지만 사적 부문의 시장화 진척에 따른 경제적 계층분화와 그에 따른 경제적 상층의 형성이 정치적 신분체계에 기반한 기존 지배질서를 공세적으로 잠식해나간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정치적 신분체계의 중·하층 지위에서 경제적 상층의 지위에 오른 가구들이 이 지위를 안정

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신분체계의 상층 이상에 위치한 ‘비시장적’이거나 ‘반시장적’일 수도 있는 ‘후견자’들의 비공식적 연결망에 의한 보호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넷째, 사적 부문의 시장화에 따라 형성된 경제적 중·상층 가구들에 의한 비공식적 연결망의 구축과 동원은 사적 부문에서 생산된 경제적 잉여의 일부가 정치적 신분체계의 상층에게로 일종의 경제외적 강제(공적 부문 지배엘리트의 직권남용과 부패)에 의해 이전되는 통로에 다름 아니다. 정치적 신분체계의 상층은 사적 부문의 비공식적 시장화와 경제적 계층분화과정에 경제적 잉여의 생산적 참여자가 아닌 약탈적 소비자의 입장에서 기생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셈이다. 본문에 제시된 세 번째 일화가 시사해 주듯이, 정치적 신분체계의 상층에 상대적으로 집중되어 있는 외화 개인재산은 현재의 지배권력체제 하에서는 대체로 축장화폐로 존재할 뿐, 증식을 위해 사적 부문에 ‘투자’되는 경우가 별로 없다. 이런 점들에 비춰보더라도 사적 부문의 비공식적 시장화와 경제적 계층분화는 현 국면에서 북한체제이행의 적극적인 동력을 이끌어내기에는 역부족이다.

물론 이 글에서 다루지는 않았지만 사적 부문에서 시장적 관계의 전면적 확산에 따른 ‘화폐권력’에 대한 숭배, 또는 법적, 개념적 모호성에도 불구하고 개인재산과 구분되는 사유재산권의 물질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확산 등이 함축하는 바에 대해서도 온당한 주의가 필요하다.

<부표> 피면접자 기초 인적사항

본문 코드	성별	연령대	직업	면접일
A1	남	40대	사업소 지도원	2003년 11월
A3	여	30대	부양. 천 도매장사	2003년 12월
A4	여	40대	부양. 가내 의류가공	2004년 2월
A5	남	40대	노동자. '중기' 장사	2004년 7월
B2	남	40대	외화별이 지도원	2004년 11월
B3	여	50대	노동자	2004년 11월
B4	여	40대	부양. 가내 의류가공	2004년 11월
B5	여	40대	부양. 장마당 장사	2005년 1월
B6	남	40대	사업소 운전수	2004년 12월
B8	여	30대	부양. 세포비서	2004년 12월
C1, C1-1	남	50대	외화별이 지도원	2005년 5월
C2, C2-1, C2-2	남	40대	외화별이 지도원	2005년 5월
C3, C3-1	남	40대	중간행정간부	2005년 5월
C4	남	40대	노동자. 소규모 밀수	2005년 5월
D2	남	40대	후방공급 지도원	2005년 6월
PS-1-1	여	20대	여성복 방문판매	2005년 11월
PS-2-1	남	50대	중간행정간부	2005년 11월
PS-6	남	30대	외화별이 지도원	2006년 1월
PS-14	남	50대	외화별이 기지장	2006년 2월
PS-18-1	남	30대	사무원	2006년 3월
RA1	남	30대	외화별이 지도원	2005년 11월
RA2	여	40대	부양	2006년 7월
RA3	남	40대	외화별이 지도원	2006년 8월
RA4, RA4-1	남	40대	자재 인수원	2007년 5월
RA5	남	50대	외화별이	2007년 6월

주: 피면접자들의 개인신상 보호를 위해 개별 인적사항을 약식으로 처리함.

## 참고문헌

- 김병로·김성철, 『북한사회의 불평등 구조와 정치사회적 함의』(서울: 민족통일 연구원, 1998).
- 박승민·배진영, “북한사회안전부 주민등록사업참고서,” 『월간조선』(2007년 7월호).
- 서재진, 『북한사회의 계급갈등 연구』(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6).
- 정우권, “1990년대 북한 주민생활보장제도와 도시 계층구조 재편,” 『현대북한 연구』, 7권 2호(2004).
- 최봉대, “계층구조와 주민의식 변화,” 『1990년대 이후 북한사회 변화』(서울: 한국방송공사, 2005).
- Andorka, Rudolf, “Social Mobility in Hungary since the Second World War: Interpretations through Surveys and through Families Histories,” in D. Bertaux and P. Thompson(eds.). *Pathways to social class: A Qualitative approach to social mobility*(Oxford: Clarendon Press, 1997).
- Atanassov, A. et al., “Socially Vulnerable Groups During the Transition to a Market Economy,” in J. Coenen-Huther(ed.), *Bulgaria at the crossroads* (Commack, NY: Nova Science Publishers, 1996).
- Bertaux, Daniel, “Transmission in Extreme Situations: Russian Families Expropriated by the October Revolution,” in D. Bertaux and P. Thompson(eds.), *Pathways to social class: A Qualitative approach to social mobility*(Oxford: Clarendon Press, 1997).
- Bodnar, Judit and Borocz, Jozsef, “Housing Advantages for the Better-Connected?: Institutional Segmentation, Settlement Type and Social Network Effects in Hungary’s Late,” *Social Forces*, Vol.76, No.4(1998).
- Hanley, Eric, “Cadre Capitalism in Hungary and Poland: Property Accumulation among Communist-Era Elites,” *East European Politics and Societies*, Vol.14, No.1(2000).
- Nee, Victor and Cao, Yang, “Postsocialist Inequalities: The Causes of Continuity and Discontinuity,” in Kevin T. Leicht(ed.). *The Future of Market Transition*

(Amsterdam: JAI. 2002).

- Rona-Tas, Akos, “The First Shall Be Last? Entrepreneurship and Communist Cadres in the Transition from Socialism,”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Vol. 100, No.1(1994).
- Staniszkis, Jadwiga, “ ‘Political Capitalism’ in Poland,” *East European Politics and Societies*, Vol.5, No.1(1991).
- Verdery, Katherine, “The Property Regime of Socialism,” *Conservation and Society*, Vol.2, No.1(2004).
- Völker, Beate and Flap, Henk, “Getting Ahead in the GDR: Social Capital and Status Attainment under Communism,” *Acta Sociologica*, Vol.42, No.11(1999).
- Yanjie, Bian and Logan, John R., “Market Transition and the Persistence of Power: The Changing Stratification System in Urban China,”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Vol.61, No.5(1996).

# The Marketization of Urban Private Sector and Economic Stratification in North Korea after Late 1990s: The Mediating Effect of Individual Household's Informal Network Resources on the Stratification System

Choi, Bong-Dae(Kyungnam University)

In North Korea the urban private sector expanded rapidly after the collapse of the state ration system. Informal marketization of the private sector led to the formation of the market-oriented economic stratification system(MSS). This new inequality system is closely linked with the political status system of inequality(PSS) firmly established in the public sector. The linkage has several characteristics.

First, in case a household belongs to the lower stratum in PSS, its position in MSS tends to be the lower. For the household has poor informal network resources it has to rely on in order to promote private market activities.

Secondly, among informal network resources the kinship network is the powerful resources when a household is to increase his 'personal

property'(de facto private property) and move upward to the upper stratum in MSS. In consequence, most of the upper households in MSS consists of the middle stratum in PSS.

Thirdly, the upper household in MSS recruited from the lower and middle strata in PSS should procure high level cadre member's unofficial protection if the household is to do its private business in stable and profitable circumstances.

Lastly, by way of graft the upper stratum in PSS is as good as plundering the economic surplus the middle and upper strata in MSS attain in the private sector. However, according to their rational calculations, the upper households in PSS choose to hoard in secret their dollar property rather than to invest it covertly in other people's private business.

In view of these characteristics, the ongoing economic stratification in the private sector, which for a time was expected to bring about the formation of a collective class agent from below, has yet to become a dynamic and subversive force in transforming North Korea.

Keywords: North Korea, Economic stratification, Marketization, Private sector, Informal economy, Informal network resources, Kinship network, Political status system of inequality, Dual inequality system, Dollar hoarding, Private property, Personal property